

그린핀테크의 개념 및 해외 육성사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재 경 (jaekyeong23@kdb.co.kr)

- ◆ 그린핀테크는 기후·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디지털 금융 기술로 ①녹색 데이터 생성 및 보고, ②녹색 데이터 분석 및 평가, ③녹색금융상품 플랫폼, ④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으로 구분 가능
- ◆ 싱가포르는 공공 플랫폼 구축, 영국은 그린핀테크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대상 지정 등을 통해 그린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, 우리나라도 그린핀테크 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

□ 그린핀테크(Green FinTech)는 기후·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디지털 금융 기술로 녹색 데이터 및 녹색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포함

- 그린핀테크는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‘핀테크’에 환경적 목표를 추가한 것으로 ‘기후·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디지털 금융기술’을 의미
- 그린핀테크에 속하는 산업·서비스 분야는 ①녹색 데이터 생성 및 보고, ②녹색 데이터 분석 및 평가, ③녹색금융상품 플랫폼, ④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등

[그린핀테크의 분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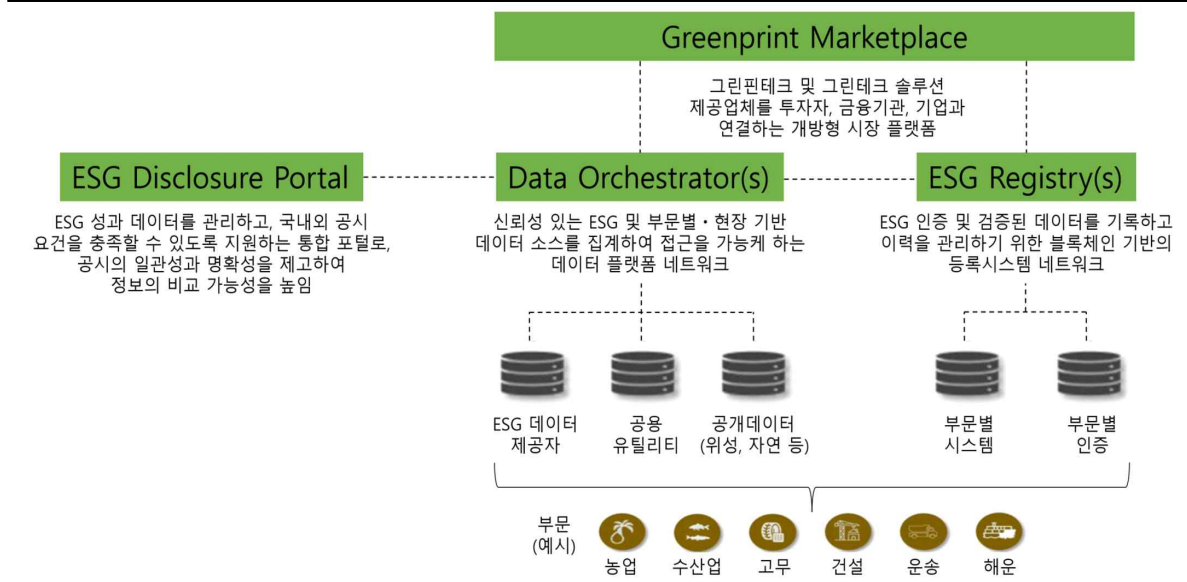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
① 녹색 데이터 생성 및 보고	금융소비자의 탄소발자국·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정보 제공
② 녹색 데이터 분석 및 평가	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ESG등급·기후리스크 평가, 기후리스크 관련 인슈어테크 제공
③ 녹색금융상품 플랫폼	녹색 재무설계 및 투자 지원 서비스, 투자자문, 대출중개 서비스 등
④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	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, 무형자산의 디지털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등

자료 : 한국금융연구원(2025) “그린핀테크(Green FinTech)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”

□ 그린핀테크 육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싱가포르와 영국

- 싱가포르 통화청은 그린프린트 플랫폼(Greenprint Platforms)을 통해 그린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및 금융기관 간의 매칭을 지원하고 그린핀테크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
 -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동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투입하면, 사업자들은 투입된 정보를 가공하여 금융회사에 제공
 - 한편, ESG Registry(s)는 그린핀테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, Data Orchestrator는 데이터 기반 핀테크의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함

[싱가포르 통화청(MAS)의 Greenprint Platforms 구조]



자료 : 싱가포르 통화청(2025), <https://www.mas.gov.sg>, 한국산업은행 재작성

- 영국 금융감독청은 그린핀테크 챌린지(Green FinTech Challenge)를 개최하여 선발된 그린핀테크 기업에 대해 제도적·재정적 지원을 시행
 - '21년의 경우 총 10개 기업이 적격성 기준(eligibility criteria)*을 통과했으며, 그 중 5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
 - * ❶적용대상 여부(In scope), ❷혁신성(Genuine Innovation), ❸소비자 편익 증진(Benefit to consumers), ❹사전 준비여부(Readiness), ❺지원 필요성(Need for innovation support)
 - 지정된 5개 기업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린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보고 및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
 - ※ 규제 샌드박스 대상 외 5개 기업은 영국 금융감독청의 혁신경로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되어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수혜

[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된 5개 기업]

기업명	주요 서비스 및 특징
① Granular	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시간 단위로 추적하여 "시간 기반 재생 에너지 인증서(Hourly Certificates)"시장을 구축하는 플랫폼 제공
② Green Growth Investments	개인 투자자들이 탄소발자국 기반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투자 플랫폼 제공
③ Greenomy	기업, 금융기관, 자산운용사가 EU 지속가능성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기반 ESG공시 자동화 플랫폼 제공
④ Karfu	자전거, 전기차, 카셰어링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금전적·환경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
⑤ Xpand	공공 부문의 투자가 미치는 사회적·환경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
자료 : 영국 금융감독청(2025), <https://www.fca.org.uk>, 한국산업은행 제작성

□ 우리나라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그린핀테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고,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그린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

-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,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녹색 데이터를 생성·유통·분석하는 그린핀테크 산업의 육성이 요구
- 따라서 기업과 그린핀테크 기업간의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그린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,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그린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